

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<선택>

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(행정)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학교법인 A(그 정관에는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)의 대표자 甲은 내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학교시설 확충자금이라는 명목으로 乙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, A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. 당시 甲은 「사립학교법」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. 그 후 甲은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버린 위 학교시설 확충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A의 기본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각하여 점유를 이전해 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이때 甲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20점)

- 1) 乙이 위 3억 원의 대여 당시 甲의 배임 의도에 대해 ① 악의였던 경우, ② 선의·경과실이었던 경우, ③ 선의·무과실이었던 경우로 나누어 乙이 A에 대하여 행사 가능한 청구권을 검토하시오. (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주류적 관례에 따른다) (14점)
- 2) A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반환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시오. (6점)

<참조조문>

「사립학교법」

제16조 (이사회의 기능)

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학교법인의 예산·결산·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
제28조 (재산의 관리 및 보호)

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단서 생략)

제 2 문. 甲은 1990. 1. 2. 乙로부터 乙 소유의 A토지를 3백만 원에 매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나, 소유권이전등기는 미루고 있던 중 1990. 4. 30. 사망하였다. 甲에게는 유일한 상속인인 丙이 있었는데, 상속개시 당시에는 甲이 A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, 이후에 그 사실을 알려준 丁에게 A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. 乙은 2001. 2. 1. 소유권등기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A토지를 戊에게 3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戊는 2015. 1. 2. A토지를 己에게 9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그 당시까지도 戊는 甲과 乙의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, A토지의 현황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다) (총 15점)

- 1) 己가 2015. 1. 6. 매매에 기한 소유권취득을 근거로 丙과 丁을 상대로 A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면, 丙과 丁은 토지 인도를 거부하기 위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? (10점)
- 2) 丙이 己가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를 인도하였다면, 乙 또는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?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라. (5점)

제 3 문. 甲은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의 관리를 위해 乙을 고용하였다. 丙은 이 건물의 3층 전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가 관리하는 화장실의 휴지통 부근에 폐신문지와 종이박스를 방치해 두고 있었다. 방문객이 위 건물의 3층 화장실에서 피다 버린 담배꽂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폐신문지와 종이 박스에 옮겨 붙어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대되었고, 이로 인해 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丙의 직원 丁이 화상을 입었다. 위 건물에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乙이 오작동을 귀찮아 한 나머지 이를 꺼두었고,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다) (총 15점)

- 1) 丁은 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? 그 경우 丙은 어떤 주장증명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? (『실화책임에 관한 법률』은 고려하지 않는다) (5점)
- 2) 丁이 입은 손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합계 5천만 원인데, 丁이 甲과 乙을 상대로 「민법」 제756조, 제750조를 근거로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乙이 丁에 대한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면, 甲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얼마인가? (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) (5점)
- 3) 丁이 의사인 戊로부터 화상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을 받던 중 戊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, 丁의 상속인은 甲에 대하여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? (5점)

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